

# “관람객을 모셔라” 민·관이 함께 된다

## 여수박람회 D-100

### 전남도·지역민·자원봉사자·서포터즈 등 성공개최 분위기 확산 홍보·마케팅 총력

여수세계박람회가 100일(5월12일 개막)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가적 대사(大事)를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코리아’와 ‘여수’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와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여수시 등 공공기관은 물론 광주·전남 지역민, 전국 1만3000명의 자원봉사자와 1253명의 온라인 서포터즈까지 성공 개최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등 남은 기간 성

공 개최를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는 남은 100일 동안 190만 지역민들과 함께 ‘관람객 맞이 밤도 민운동’을 전개해 개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총력을 쏟는 한편, 박람회 입장권 구매 홍보 등 관람객 유치에 힘쓰는 홍보·마케팅에도 힘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남도민지원협의회의 입장권 구매 협약 체결을 계기로, 도지사·시·군

방 등을 통해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도청 노조·입원 등과의 간담회를 열고 공직자 및 산하기관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입장권 구매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또 다음달 예정된 ‘여수엑스포 홍보자원봉사단’ 워크숍을 통해 성공 개최를 위한 실천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전남도는 아울러 전남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거나 우호교류 대상 지역과 연계, 참관단을 박람회 기간 초청하는 등 해외 관람객 유치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의회도 여수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의회 차원의 박람회 개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입장권 판매 촉진 활동 및 전국 시·도 의회를 대상으로 한 박람회 홍보 계획 등을 논의키로 했다.

여수시도 14개 시민사회단체와

캠페인을 전개하고 실천대담회를 여는 등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엑스포 4대 시민운동’과 박람회 기간 중 ‘승용차 안타기 운동’등을 적극 펼쳐나가기로 했다.

박람회 기간 중에는 타 지역 관람객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관광지 환경개선 등 국토경관운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1만3000명으로 구성된 여수박람회 자원봉사자와 온라인으로 개최 분위기를 띄우고 전 세계에 홍보하는 역할을 맡은 1250명의 ‘엑스포 SNS 서포터즈 그룹’도 1일 박람회 성공 대담회를 계기로 여수박람회가 국가 위상을 높이는 대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나선다.

강동석 여수박람회 조직위원장은 “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박람회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호남지역 경선 2월말~3월초에

## 4·11 총선 D-70 민주당 로드맵 제시

민주당의 4월 총선 공천 관련 로드맵이 제시됨에 따라 공천 티켓을 확보하기 위한 광주·전남지역 공천 전경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민주당이 9일부터 11일까지 후보자 공모를 하고 공심위(공천심사위원회)가 13일부터 심사에 들어가며 20일 이전까지 예비 후보자 컷-오프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민주당당내 컷-오프를 통해 적게는 2명, 많게는 3~4명으로 후보자들을 압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컷-오프는 당 기여도와 정책성, 경쟁력, 도덕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후보군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의정 활동과 경쟁력, 지역 여론 등으로 토대로 현역 국회의원들을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물갈이’가 이뤄질 전망이다.

컷-오프에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후보자들

민주당 통합 총선 공천 주요 일정(안)

2월 6일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완료
2월 9~11일	후보자 공모
2월 13일	후보자 심사 개시
2월 20일	경선 개시
3월 16일	공천완료

※ 광주·전남 경선은 2월 말~3월 초 예상

## 야권연대 전략공천 현역 물갈이 맞물려 공천경쟁 긴장 고조

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또한, 20일부터 경선이 시작한다는 점에서 전략공천 지역과 경선 지역 선정도 이 시기에 가닥이 지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광주·전남 등 호남지역의 경선은 이른바 이달 말, 늦으면 3월 초순부터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야권연대와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등이 맞물리면서 상당한 논란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당장, 일부 현역 국회의원과 예비후보들의 반발과 탈당, 무소속 출마 강행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구에 민주당당 후보들이 상당수가 몰려 있다는 점에서 컷-오프가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선을 앞두고 호남은 한 마디로 ‘화약고’라고 할 수 있다”며 “야권연대와 전략공천, 현역 국회의원들의 물갈이가 혼재되면서 상당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경선 로드맵이 제시됨에 따라 이제부터 본격적인 공천 경쟁이 시작됐다”며 “벌써부터 일부 현역 국회의원의 컷-오프 탈락설이 제기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준영 전남지사)는 1일 여수박람회 조직위원회 프레스룸에서 제25차 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여야 정당에 촉구했다.

# “지방분권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라”

## 전국 시도지사협성명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지방분권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여야 정당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여수박람회장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방분권 과제와 국회 지방분권 입법추진기구 구성방

안 등을 제시하고 이를 총선공약에 반영할 것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특히, 최근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된 것에 대해 영유아 무상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90% 이상 상향조정할 것도 요구했다.

이날 지방분권 과제는 자치행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지방분

권 헌법개정 등으로 나눠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이 제시됐다.

또 지방재정부담을 가져오는 정책에 대해 중앙-지방간 협의제도를 마련하고 국세의 지방세 전환, 국고보

조사업 국비 비율, 포괄보조 확대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행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지방정부 조직 구성권과 인사권 보장을 요구했다.

특히 지방자치에 관한 형식적·선언적 규정 때문에 지방자치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분권 개헌도 촉구했다. 개헌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역대표로 구성되는 양원제 도입, 입법권·재정권의 배분 등을 제시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 광주전남 지역구 여성의원 나올까

민주당통합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있어 여성 후보자를 15/100 이상으로 하고 전략공천의 여성 비율을 50/100 이상으로 하는 당규를 확정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여성 지역구 의원이 배출될지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통합이 지역구 여론조사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여성 후보자를 적극 공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성 예비 후보자들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구 경선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일단 민주당통합은 이달 중순에 지역구 도전에 나가고 있는 여성 예비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 적합도, 지지도, 경쟁력 등의 항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공천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여성 예비 후보가 어느 정도 경쟁력만 갖췄다면 전략공천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여성 예비 후보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구의 공천 구도를 뒤엎을 가능성이 높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통합이

광주와 전남 지역구에서 각 1명씩 여성 예비 후보를 전략공천 하지 않는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배출된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이 단 2명에 불과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통합은 청년 비례대표

선출과 관련, 1일부터 6일까지 2차 공모에 들어간다. 공모방법은 1차와 동일하며 1차 지원자들은 2차 공모기간 중에 서류와 동영상상을 보정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통합 청년 비례대표에 공모한 후보는 389명이며 2차 공모가 끝나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세계보청기

##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계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계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스타·세계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삼일로점(삼일로점) 02-2276-0657-9, 강남점(강남고교점) 02-3477-5110, 종로점(종로점) 02-733-0220, 송파점(송파역 2번 출구) 02-419-3388, 경기 안양점(구.인민회관) 03-2421-2288, 부평점(부평역) 03-2617-5110, 수원점(남문) 03-1246-5110, 의정부점(의정부역) 03-1821-6655, 안양점(백산로2001) 서울역점 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03-166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 03-1336-1090, 오산점(오산역) 03-1278-4183, 부천점(부천역) 03-2939-4400, 남양주점(평내로) 070-8829-9803, 부산 서면점(서면로) 051-818-8800, 서면점(서면로) 051-256-7200, 울산 울산점(울산로) 052-28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055-251-0360, 진주점(진주역) 055-745-9870, 대구 동원점(동원로) 053-425-4440, 삼척점(삼척역) 053-426-1511, 남일점(남일로) 053-425-7576, 경북 청주점(청주역) 0540-44-5110, 안동점(구.인민회관) 054-659-2288, 광주 광주점(광주역) 062-954-4477, 전남 순천시점(순천시) 061-752-8945, 전북 전주점(전주역) 063-252-5722, 군산점(군산역) 063-346-1098, 익산점(익산역) 063-838-6200, 남원점(남원역) 063-832-3626, 대전 대전점(대전역) 042-225-5110, 대전점(충촌로) 042-222-3389, 대전점(대전역) 042-225-6000, 충남 천안점(천안역) 041-553-2888, 광주점(광주역) 041-852-5110, 충북 청주점(청주역) 043-225-5110, 대전점(대전역) 043-222-1177-8, 충주점(충주역) 043-652-1414, 강원 강릉점(강릉역) 033-647-0588, 춘천점(춘천역) 033-253-5110, 제주 제주점(제주역) 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FDA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ISO 9001인증, ISO 13485인증, CE 0120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GMP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계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 광주 구도점(구도점) 062-225-5110, 문의전화 062-225-5110, ■ 광주 백운점(백운점) 062-651-4477, 문의전화 062-651-4477, ■ 순천점(순천점) 061-752-8845, 문의전화 061-752-8845